“시비에 마음 뺏기지 말고 부처님 법을 보길 바란다”

직영사찰 봉은사 주지 원학스님 취임

“나는 공부하는 수행자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다. 항상 탁마가 필요하며, 탁마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닦아가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스님 좋았구나’라고 생각해 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봉은사 제25대 주지 원학스님이 지난 8일 취임했다. 이날 봉은사 법왕루에서 10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취임한 원학스님은 주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스님은 “산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요(山非招我住)/ 나 또한 산을 알지 못하니(我亦不知山)/ 산과 나 서로 잊은 곳(山我相忘處)/ 바로 별다른 한가로움 있구나(方爲別有閑)”라는 조선시대 수초스님의 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법문을 시작했다. 산이 나를 부르지 않은 것처럼, 봉은사가 나를 불러서 온 것이 아니며, 이곳에 머물다가 또 어디로 간다는 의미.

“시비를 논하는 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즐거울 때 난(蘭)을 치고, 분노가 솟을 때 죽(竹)을 치며 살아왔다”고 자신의 수행방편을 소개한 원학스님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한다, 신도들이 주지(손가락)에 대한 시비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달(부처님 법)을 보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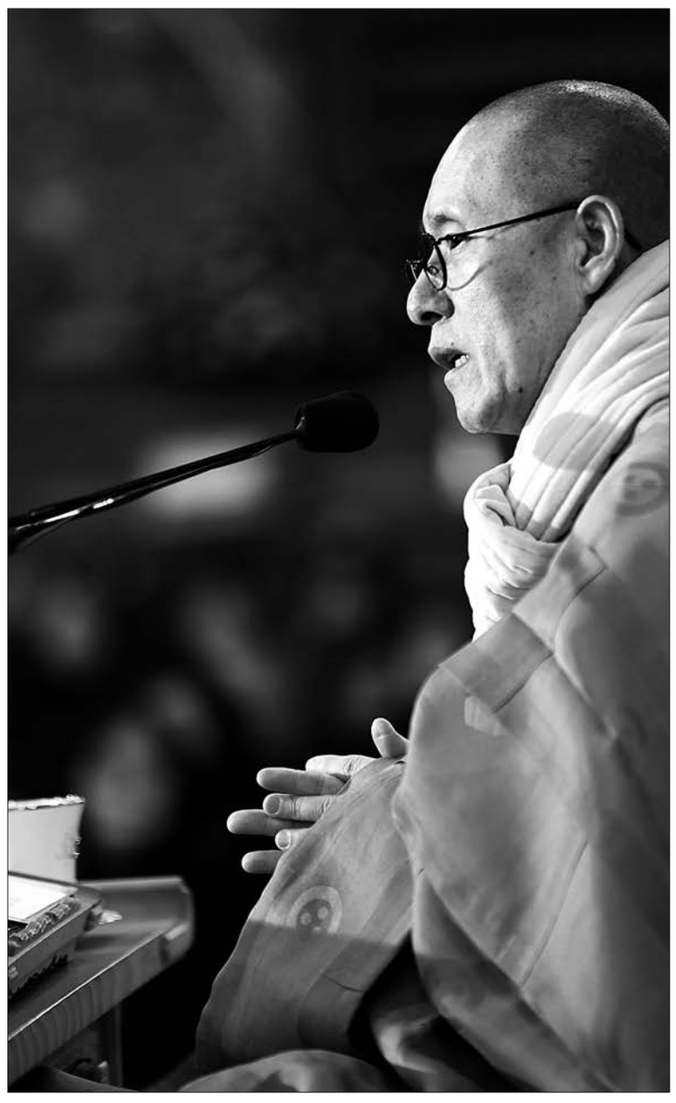
“탁마는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닦아가는 것…” 대중위해 봉사 약속

취임법회 후에는 신도단체장, 신도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나는 얼마나 소임을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 열심히 정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원학스님은 주요 종무직 스님들의 인사를 단행했다. 총무국장 겸 재무국장에 중앙종회의원 종민스님, 기획국장에 중앙종회의원 정문스님, 교무국장에 일진스님, 교육국장에 본오스님, 포교국장에 혜찬스님을 임명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보다 그동안의 성과를 충실히 이어가며 확대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

원학스님은 1971년 해인사에서 출가해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제10·11·12·15대 중앙종회의원과 서울 봉국사, 진주 연화사, 대구 용연사, 서울 조계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총무원 문화부장·총무부장을 역임했다. 또 불교중앙박물관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문화재청 사적분과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청남 오제봉, 효당 최범술, 우계 오우선 선생으로부터 서계와 다도, 남종화를 사사받고 6회에 걸친 개인전을 연 바 있다.

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봉은사 주지 원학스님이 지난 8일 일요법회 자리를 통해 주지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부처님 법을 보고 함께 탁마해가자고 당부했다.

결사총괄부장 덕산스님

문화사업단 탄원스님·연수원 도우스님…사무국장 임명

덕산스님

탄원스님

도우스님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에 덕산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탄원스님,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에 비구니 도우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덕산, 탄원, 도우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각자 소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사총괄부장 덕산스님은 도영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금산사에서 병빈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금산사 서래선원 재무 및 총무 소임을 역임했다. 현 금선암 주지다.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구장 탄원스님은 자승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대덕사 주지, 해룡사 주지를 역임했고 호법부 상임감찰을 지냈다. 현재 해룡사 주지다.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 도우스님은 영호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2003년 통도사에서 보성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대휴선원, 대성암선원, 보현암선원, 위봉선원, 정수선원, 죽림선원, 가야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교육아사리’ 모십니다

교육원 27일 마감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승가교육에 필요한 교육과 학술연구를 담당할 ‘조계종 교육아사리’를 위촉한다. 교육아사리는 승가교육발전을 위해 종단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담당하거나 승가교육기관에서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게 된다. 종단 승가교육기관 교수 임용시 우선 추천 및 강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매년 종단으로부터 소정의 연구비도 지급받는다.

교육아사리는 불교사, 계율과 불교윤리, 초기불교, 대승불교 등의 분야에서 선발한다. 교육아사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덕, 정덕 법계를 수지한 승납 15년 이상으로 △박사과정 수료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 △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졸업 후 교육·연구경력 3년 이상 △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졸업 후 번역 및 연구성과가 있는 등 4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의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소정양식의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수행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교육 및 연구계획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논문, 최근 4년간 연구실적 등을 구비해 오는 27일까지 교육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 뒤 오는 2014년 2월 교육아사리로 정식 위촉하게 된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바로잡습니다

본지 2969호 2면 조계종 중앙종회 연수 기사에 수록된 성낙인 서울대 교수 사진은 김홍신 건국대 석좌교수로 바로잡습니다.

제7회 불교상담심리사 자격고시 1월19일 시행

조계종 포교원은 제7회 불교상담심리사 1, 2급 자격고시를 오는 2014년 1월19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불교상담심리사 자격고시는 조계종 신도등록자로서 불교상담대학을 졸업(예정)하거나 포교원과 불교상담개발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졸업(예정)해야 한다. 고시 희망자는 오는 23일부터 2014년 1월13일까지 응시원서와 조계종신도증 사본, 상담 관련 자격증 사본, 상담경력확인서,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등을 구비해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에서 스님과 포교사는 불교교리와 불교역사 과목을, 2급 취득자는 불교교리와 불교역사 불교상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최종 합격발표는 2014년 2월에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자비나눔 ‘아름다운동행’

화계사 아프리카 학교건립·승려복지 기금 도솔합창단 상금 기부…대전사 한림건축도

연말을 앞두고 자비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찰과 불자들의 정성이 아름다운동행에 답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건립을 비롯해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및 연탄나눔 등 나눔 동참의 목적도 다양하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스님)는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기금 전달식을 갖고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화계사가 전달한 기금은 신도회에서 주관한 바자회 수익금과 사찰에서 모은 기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각각 1000만원씩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건립과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에서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은 “매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신도회의 바자회팀이 나서서 기금을 모아주신다”고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하게 된 계기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바자회 수익이 많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늘 기금전달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천안 각원사 도솔합창단(단장 고명숙)도 지난 10일 아프리카 학교건립기금 5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도솔합창단은 ‘2013 불교합창페스티벌’ 대상 상금을 이날 자비나눔을 위해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고명숙 단장은 “상금을 보람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청송 대전사(주지 도홍스님)가 자비나눔 기금으로 1000만원을, 한림건축 임직원들이 연탄나눔 기금으로 300만원을 지정 기탁하는 등 소외이웃을 위한 불교계의 정성이 이어지고 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자비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찰과 불자들의 정성이 아름다운동행에 답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과 신도들이 기금 2000만원을 전달하는 모습.

본·말사 주지 인사 (12월10일 종무회의)

정호스님
대구 정보사

법인스님
공주 보림정사

해문스님
김해 경운사

원문스님
창원 금룡사

탄공스님
서울 보리사

남곡스님
의령 운암사

두하스님
봉화 홍제암

大韓佛敎曹溪宗 元老比丘尼 月照堂 智明禪師 永訣式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2월 4일 圓寂에 드신 大韓佛敎曹溪宗 元老比丘尼 月照堂 智明禪師의 영결·다비식을 12월 8일 大韓佛敎曹溪宗 全國比丘尼會葬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에 직접 찾아와 月照堂 智明禪師의 마지막을 함께 해 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스님들과 제방의 스님,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과 교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잃지 않아야만 한다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 月照堂 智明禪師 追慕齋 案內 ■

초재	2013년	12월	10일 (화)	오전 10시 화운사 (031-335-2576)
2재	2013년	12월	17일 (화)	오전 10시 화운사
3재	2013년	12월	24일 (화)	오전 10시 수덕사 (041-337-6565)
4재	2013년	12월	31일 (화)	오전 10시 화운사
5재	2014년	1월	7일 (화)	오전 10시 화운사
6재	2014년	1월	14일 (화)	오전 10시 연화사 (02-379-1570)
49재	2014년	1월	21일 (화)	오전 10시 화운사

불기2557년 12월 9일

大韓佛敎曹溪宗 元老比丘尼 月照堂 智明禪師 門徒 合掌